

권고에 집중 (권고 13 과 27)

<https://www.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he-admonitions/144-fa-ed-1-page-128>

[13. 인내]

¹ 행복하여라,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!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. 마태 5:9

² 하느님의 종은 자기가 만족스러워 할 때에는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인내심과 겸손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자기를 만족스럽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순간이 왔을 때, 그 때에 지니고 있는 만큼의 인내와 겸손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

[27. 악습을 몰아내는 덕]

¹ 사랑과 지혜가 있는 곳에
두려움도 무지도 없습니다.

² 인내와 겸손이 있는 곳에
분노도 동요도 없습니다.

³ 기쁨과 더불어 가난이 있는 곳에,
탐욕도 인색도 없습니다.^a

⁴ 고요와 묵상이 있는 곳에
걱정도 방황도 없습니다.

⁵ 자기 집을 지킴에 주님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 루카 11:21
원수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.

⁶ 자비와 신중함이 있는 곳에
지나침과 완고함도 없습니다.

토론과 저널 쓰기를 위해서

-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? 사적인 예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시오.

(가족, 친구, 소셜 미디어, 정치적인 토론에서)

- 권고 27은 우리의 형제회 생활 (1-3절) 과 영적 삶 (4-6 절)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? 이 절들은 어떤 점에서 겹치는가? 예를 들어 보시오.
- 이 두 권고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프란치스칸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?